

도산 안창호의 고향으로 미해군 최초의 여성포격술 장교 미국 해군 특수부대 대위
책 속의 독립운동(전보장국) 비밀정보 분석가로 활동한 안수산의 치열한 삶...
그 삶 속에서 되살아 반짝이는 도산의 민족혼!

버드나무 그늘 아래



도산 안창호의 딸 안수산 이야기

존 차 지음 - 문형렬 옮김

문학세계사

아름답고 용기있는 여성 도산 안창호의 딸 안수산 이야기

이명화_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선각자요,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의 장녀로 태어난 안수산 여사의 자서전이다. 원제는 Willow Tree Shade(버드나무 그늘)이며 영문으로 쓰여졌다. 이 책은 뜨거운 캘리포니아 햇빛을 가려 줄 버드나무를 직접 심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추모하고, 수산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자신을 사색에 잠기게 했던 그 버드나무를 추억하며 제목을 『버드나무 그늘 아래』로 잡았다. (독립기념관 경내 동편에 안창호 시·어록비가 있는 곳에서 백련못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편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버드나무가 있다.)

상하이에 있는 도산에게 보낸 가족사진



미 국 로스앤젤레스의 3·1 여성협회에서는 수산에게 찰막한 전기를 써달라고 의뢰하였다. 이 책의 당초 기획은 찰막한 전기였지만 살아있는 자전적 전기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작자인 재미교포 존 차(John Cha, 한국명 차학성)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존 차는 안수산 여사와 함께 여러 해를 지내면서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 작가로서 성실하게 수산의 가슴 속에 담아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자료> 중 수산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여러 차례 직접 독립기념관에도 다녀간 바 있다. 이렇게 하여 5년간의 긴 여정 끝에 이 책이 완성된 것이다.

이 책은 어린 수산의 가족 얘기, 소녀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과 미 해군 복무와 결혼해 어머니가 되기까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자부심 등이 곳곳에 스며 있다. 그리고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 당시 방문 감상과 2001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시청 광장에 세워진 안창호 동상 개막식에 참여한 감상을 끝으로 얘기를 마치고 있다.

수산은 오빠인 필립과 필선 다음의 셋째로 1915년 7월 5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하였다. 수산 다음으로 여동생인 수라, 그리고 막내동생인 필영이 태어났다. 현재 위로 오빠들은 모두 타계해 도산 가족의 맏이가 된 그녀의 나이는 올해 여든 살이다.

수산은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 사회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1942년 12월 미 해군 소위로 입대하였다. 해군 입대는 아버지의 자취를 따르는 일이며,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수산은 해군 비행사들에게 공준전을 가르치는 유능한 포격술 장교(대위)로 복무하였다.

1945년 1월, 동양인인 그녀가 일본어에 능통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 미 해군 통신본부에 배치되어 일본군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그녀는 이 곳에서 특유의 성실과 인내심, 그리고 책임감으로 꼭 필요한 인물로서 인정받았다. 수산이 미 해군 통신부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부대 사령관은 감독관들에게 “어떤 동양인 여자가 건물의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되었으니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일을 처리하는데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적힌 메모를 돌렸다고 한다. 수산은 모든 동료들이 자신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의 눈길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아이디어와 성실성으로 마침내 동료들과 감독관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수산은 Op20G와 암호, 국가 중대사의 비밀통신 등을 취급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해군에서 전역할 당시 상관인 미 해군 정보국 사령관 하퍼는 “정확성과 창의성, 그리고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특화된 분야에서 총괄적인 기록업무를 철저하



제2차 대전 당시 미군으로 복무했던 도산의 세자녀

게 파악하고, 자신의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탁월했으며, 이를 통해 그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감독했었습니다. 안 수산 대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협동적이고 예의바르고 원만했습니다. 안수산 대위는 언제나 자신의 임무에 자부심을 가졌으며,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탁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그녀를 평가하였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부전여전(父傳女傳)’의 격언을 확인한다. 수산은 전역한 후에도 민간인으로서 계속 정보국 중앙참모부서의 책임자로 복무하다가 1959년에 사직하였다.

수산은 4살 되던 해인 1919년 도산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면서 아버지와 헤어졌다. 그리고 한 차례 미국을 방문하고 1926년 또다시 상하이로 떠난 아버지와와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은 내면 깊숙히 자리한 도산의 딸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미국 사회에서 적극적이며 용기있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도산이 주창한 무실역행, 충의용감의 삶이기도 하다.

이 책은 가족과 헤어져 독립운동을 해야 했던 독립운동 가문의 소중한 가족사이면서, 온갖 고난과 애환 속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을 지켜간 국외 우리 동포 이민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수산이라는 아름답고 용기있는 한 여성의 삶을 담고 있지만 그의 부친인 안창호의 민족혼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책이기도 하다.